**春**

のようにかいしが

の上にらかに流れます。

赤ちゃんは生まれてまだ

何もれていない手で

陽射しをいじっています。

ひたすらりそそぐかな陽射し！

赤ちゃんの小さなにれるほど入りみ、

青よりも深く黒い赤ちゃんの眼は

初めて見る春の情愛に満ちた手の動きに

いたようにぱちくりさせています。

頭をれて針仕事をしているいお母さんは

道具を一方にしやり、

そっと赤ちゃんのにり

ましい笑みをえくぼにっています。

じっと見守ってください。

この若いお母さんと可愛い赤ちゃんを。

世界はまさにこの親子のために

目に入れてもくない

の絵を広げます。

**５年生以上―課題文⑤**

**봄**

우유처럼 따스한 햇빛이

마루 위로 지르르 흐릅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아직

아무것도 만지지 아니한 손으로

햇빛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마냥 쏟아지는 부드러운 햇빛!

아기의 작은 가슴팍에 넘치도록 안겨들고,

푸르다 못해 검은 아기의 눈초리는

처음 보는 봄의 정겨운 손놀림에

놀란 듯 깜작이고 있습니다.

고개 숙여 바느질하던 젊은 엄마는

반짇고리 한쪽으로 밀어 놓고,

살며시 아기 곁에 옮겨 앉아

흐뭇한 웃음을 볼우물에 담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 젊은 엄마와 귀여운 아기를.

세상은 바야흐로 이들을 위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 폭의 그림을 펼칩니다.